

오늘의 유머

■ 열렬결에 회사에 출근한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낯선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누구시죠?" "이 집 파출부인데 누구 바꿔 드릴까요?" "파출부요? 주인 아줌마 좀 바꿔주시겠어요?" "남편분하고 지금 침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데요." 화가 난 남편이 말했다. "지금 남편이라고 하셨나요?" "네, 야근하고 방금 오셨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쩐지... 저기 현장을 잡아주세요! 사려는 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두 사람이 일을 벌이면 몽둥이로 때려 남자를 기절시키세요!" 망설이던 파출부가 잠시 자리를 뜬 뒤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둘 다 기절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잡았어요. 내가 갈 때까지 두 사람을 묶어 두세요. 거실 오른쪽에 있는 다용도실에 끈이 있으니 빨리 하세요!" "네? 다용도실요? 다용도실 없는데요." ■ 어떤 효자 기말고사가 끝난 후 성적표가 나오지 않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다. "왜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니?"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자 아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부모님께 걱정 끼쳐 드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요." ■ 옆집 남자 두 남자가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나라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

는 사람이 누구지 알아?" "누군데?" "옆집 남자." "이유가 뭔데?" "집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옆집 남자는 돈도 잘 벌어들이고, 인간성도 좋고, 집안일도 잘 돕고..." "하긴 우리 옆집에도 그런 남자가 살더라." ■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주위를 둘러 보던 목사가 다시 말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때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할아버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말씀해주십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있었는데 다 죽었어."

■ 아이의 눈물 식당을 운영하는 남자에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다. 강아지를 키우게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강아지 밥 만들어 주세요." "애야 일부터 개밥을 만들 필요가 없단다. 저기 손님이 먹고난 음식을 주면 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은 손님의 식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손님이 식사를 끝내고 일어서려는 데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놀란 아버지가 물었다. "아니 애야 왜 우는 거니?"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 아저씨가 개밥까지 다 먹어버렸단 말이야!" ■ 사표 왕자병에 걸린 한 남자가 사장을 찾아가 말했다. "사장님, 다음주에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장이 대답이 없자 남자가 다시 말했다.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자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음주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리빙 센스

◇이마 주름 없애기

이마 근육을 움직여주면 탄력이 붙어 주름을 예방할 수 있고 깊게 패인 주름을 완화할 수 있다. 3회 반복해서 실시한다. 1. 한쪽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15초 동안 지그시 누른 다음 사선으로 10회 문지른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10회 문지른다. 2. 이마의 가로 주름에 양손 엄지와 검지를 댄다. 주름을 꼬집듯이 집어 3초간 유지한 뒤 핑거로 놓아준다.

◇눈가 붓기 없애기

눈두덩의 신진대사를 높여 눈가의 붓기가 빠진다. 모든 동작을 3회씩 반복한다. 1. 양쪽 손바닥을 눈에 대고 20초 동안 지그시 누른 다음 눈 주위의 뼈를 따라 꼭꼭 눌러가며 지압한다. 2. 양손 검지를 관자놀이에 대고 3초간 지그시 누른 다음 앞뒤로 10회씩 원을 그리듯 돌린다.

시끌벅적 e-스타



섹시한 그녀... '김연아 따라하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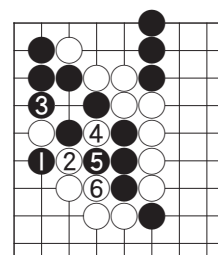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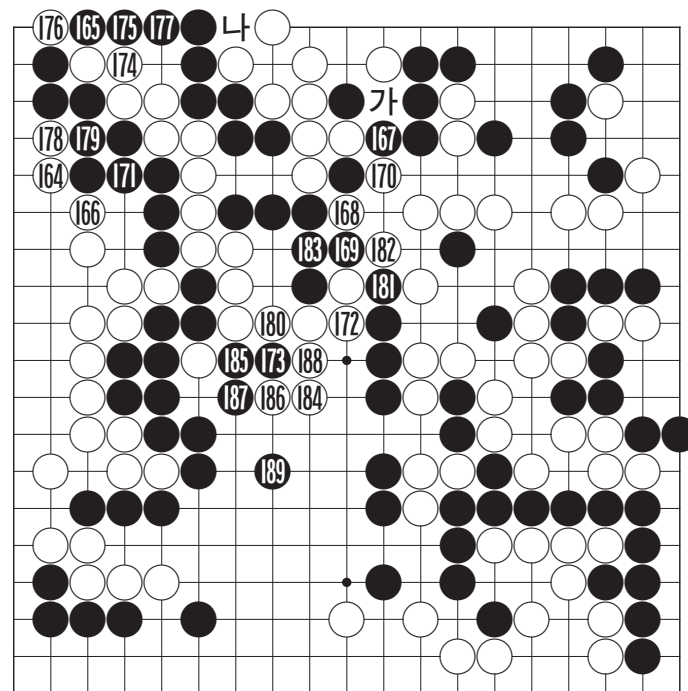
우아한 몸짓으로 빙상 위를 누비는 '피겨 요정' 김연아. 그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김연아의 경기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인터넷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인기 동영상이고 김연아의 일거수일투족도 속속 동영상에 담기면서 네티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는 섹시한 숙녀로 변신하고 있는 김연아의 화장법 따라하기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강렬한 눈빛 연기로 관중들을 사로잡아버린 김연아를 따라 스모키 화장을 배워보자! 청순하고 귀엽던 피겨 소녀에서 남성팬들의 가슴 뛰게 하는 섹시 숙녀로 변신하고 있는 김연아의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강렬한 눈매. 유아하고 섹시해진 김연아의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서 컨실러와 파우더는 기본이다. 먼저 베이

지색 계열의 '반짝반짝' 펄 색조를 눈두덩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준다. 펄 타입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속눈썹을 채우듯 라인을 그려나가는 게 다음 단계. 아이라이너로 언더라인까지 그려준 뒤 눈초리를 살짝 올려주어 섹시함을 강조하자. 아이라이너로 라인 그리기가 끝나면 브러시를 이용해 밝은 브라운 색조를 눈두덩이 중간까지 발라준다. 포인트 브러시로 다크브라운 색조를 덧발라주면서 명암을 주면 그윽한 눈매가 완성된다. 스모키화장의 포인트는 새침하게 올라간 속눈썹이다. 뷰러를 이용해 속눈썹을 삼 단계로 살짝씩 올려준다. 마지막 단계, 마스크라로 눈썹 뿌리부터 지그재그로 발라 올려주면 김연아표 스모키 화장이 완성된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빠아픈 도강

페어부 결승 9번(165~189) 白 함영수·송예슬 黑 오창석·이수빈 (전라남도) (경기도)



<참고도>

여쳐 6으로 흑 석점이 잡히고 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흑 165로 빠아픈 도강을 하며 공배를 이어가고 있다. 흑 167이 강수로 상변 백 대마가 그냥 사

는 수는 없어졌다. 백이 '가'로 두더라도 흑 '나'로 패가 된다. 그런데 전남팀은 한술 더 떠 백 168로 끊는 강수를 들고 나온다. 흑이 계속해서 170에 이어 상변 백을 잡는 것을 고집하면 183에 두어 흑 대마와 수상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팀은 장고 끝에 흑 169로 후퇴하고 말았는데 의외로 흑 대마의 수가 짧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백 170으로 따내는 절대 우세의 국면이다. 그래서 흑도 171로 잇고 181로 끊어 최후의 일전을 노린다.

<오규철 9단·본보 비독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8일(음 11월 21일 壬辰)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 large table with 4 columns and 2 rows. Each cell contains a phrase 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along with its meaning and a small illustration. The columns are: 1. I'm getting kind of tired. 2. 我永远也忘不了你. 3. 我属马. 4. 雪泥鸿爪(설니홍조).